



신현배 | 시인 /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백마강 흰 말을 미끼로 용을 낚다

백제 제31대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640년 아버지 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는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군사력을 키워 신라를 자주 공격해 많은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임금이 된 지 15년을 넘기면서부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라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술과 여자로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백제는 국력을 잃어갔습니다. 이제 멸망의 길이 멀지 않았다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60년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해 왔습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 군사 5만 명은 탄현을 넘어 황

산벌을 향해 진군해 오고,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나라 군사 13만 명은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 백마강에 진을 쳤습니다.

의자왕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궁궐로 계백 장군을 불렀습니다.

의자왕은 간밤에 잠 한숨 못 잔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가 계백을 보자 반색을 했습니다.

“오, 장군! 어서 오시오. 이제 내게 믿을 사람은 장군밖에 없소. 제발 나를 도와주소.”

의자왕은 눈물을 흘리며 계백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치와 방탕에 흘러 오랫동안 나라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두 편으로 나뉘어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향해 쳐들어온다는 전갈을 받고 다급해진 나머지 계백을 부른 것입니다.

“장군에게 5천 군사를 주겠소, 적군을 막아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백은 5천 군사를 거느리고 황산벌로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백제군과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맞부딪쳤습니다.

두 나라 군사들은 서로 뒤엎겨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황산벌은 금세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계백이 지휘하는 5천 명의 결사대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전투가 거듭되면서 백제군은 5천 군사로 신라 군사 5만 명을 막기에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백제군은 계백 장군을 비롯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백마강 쪽으로는 소정방의 당나라 13만 대군이 배를 타고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소정방은 기고만장했습니다. 백마강에 이르기까지 백제군으로부터 공격 한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살 한 방 맞지 않고 무사통과했으니, 소정방은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의기양양했습니다.

“하하하! 하룻강아지 백제군이 어떻게 호랑이 당나라군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애들아, 빨리 노를 저어라. 백제왕을 항복시켜 내 앞에 무릎 꿇려야겠다.”

소정방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나아가던 배들이 갑자기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정방은 칼을 뽑아 들고 호령했습니다.

“빨리 노를 저으라는데 뭇들 하느냐? 왜 갑자기 배를 세워? 혼이 나아 정신을 차리겠느냐?”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잘 미끄러져 가던 배들이 왜 움직이지 않아? 그럴수록 힘껏 노를 저으라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없습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라니? 귀신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장난이라도 친단 말이나?”

“그렇지도 모르죠. 이곳 지리에 밝은 백제 사람을 불러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으음, 그래야겠다. 백제의 노인 한 사람을 얼른 잡아 오너라.”

소정방의 명령이 떨어지자 당나라 군사들이 배에서 내려 강둑을 서성이던 노인 한 사람을 잡아 왔습니다.

소정방은 자기 앞에 꿰어앉힌 노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똥눈 말에 거짓 없이 대답해라. 우리 배들이 지금 발이 묶여 꼼짝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강에 우리 백제를 지키는 신이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왕인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께서 용으로 변하여 당나라 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뉘, 뉘라고? 그게 정말이나? 용을 없앨 수 있겠느냐?”

“나는 백제 사람ियो. 용을 없앨 수는 없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안 그러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오.”

노인은 나라를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백성이었습니다. 소정방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저런 고얀 놈이 있나? 감히 우리를 협박해? 여봐라, 당장 저 늙은이의 목을 베라!”

소정방은 노인을 처형한 뒤 다른 백제 사람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번에 끌려온 사람은 욕심 많은 젊은 관리였습니다.

“백제의 운명은 이미 끝났다. 쓸데없이 버티지 말고 묻는 말에 고분고분 대답해라. 내 말을 잘 듣는다면 금은보화를 주마.”

소정방의 제의에 관리는 구미가 당겼습니다. 그래서 소정방이 용을 없앨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무왕은 원래 흰 말, 즉 백마를 좋아했어요. 따라서 백마를 미끼로 써서 낚시를 한다면 쉽게 용을 낚을 수 있을 거예요.”

“기막힌 방법이구나. 고맙다.”

소정방은 크게 기뻐하며 관리에게 금은보화를 주었습니다.

이윽고 소정방은 백마 한 마리를 구해 동아줄로 묶은 뒤, 바위 위에서 강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얼마 뒤, 곧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바다 속에 있던 용이 백마를 덥석 물은 것이었습니다.

“오, 드디어 걸렸다!”

소정방은 흥분하여 소리치며 낚시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용머리가 물 위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용은 힘이 대단했습니다. 밖으로 끌려나오지 않으려고 죽을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소정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며 낚시대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리하여 소정방과 용의 줄다리기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힘 빼지 말고 순순히 올라와라. 네놈은 나를 이기지 못해.”

소정방은 젓 먹던 힘을 다해 낚시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용이 물을 박차고 나와 하늘로 치솟더니, 바위 밑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쳐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정방의 13만 군사는 백마강을 진군하여 사비성으로 쳐들어 갔고 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정방이 용을 낚아 올린 바위를 ‘조룡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위에는 용을 끌어올리느라 생긴 동아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은 강을 ‘백마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백마강은 원래 금강인데, 부여를 지나는 부분만 그런 이름을 얻은 것이지요. 🌊